

지역 소식통

완주군, 대둔산 케이블카 5-6월 특별할인 이벤트

완주군민들이 5월부터 6월까지 대둔산케이블카 특별할인을 받는다.

7일 완주군은 완주 제1경인 대둔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주)양지대둔산케이블카와 협의 해 2개월간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완주군민은 20% 할인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둔산 케이블카는 대둔산을 찾는 탐방객의 70%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로 대둔산을 보다 쉽게 오를 수 있다.

특별할인에 따라 성인 기준 왕복 1만 2,000원, 편도 9,500원(소인왕복 9,500원, 소인편도 9,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6월 8일부터 9일까지 대둔산축제 기간에는 완주군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 생문동 상설버스킹 10월 말까지 공연

사)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이하 완주생문동)가 10월 말까지 '완주생문동 상설 버스킹' 공연을 연다.

지난 4일 고산미소시장을 시작으로 버스킹 시작을 알린 완주생문동은 10월 말까지 완주군 일대 공원과 거리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상설버스킹은 지난 2019년부터 완주생문동이 꾸준히 추진해 온 특색 있는 기획공연으로 동호회원들에게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비비낙안카페(삼례), 상장기공원(봉동), 둔산공원(봉동), 고산미소시장(고산), 삼례시장(삼례), 지사울공원(이서)에서 격주 토요일 오후에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완주생문동 소속 25팀, 200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난타와 색소폰, 통기타, 고고장구 등 수준 높은 연주와 신나는 노래로 공연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줄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새만금 신항 개항 준비 '본격'

김제시, '김제시항만 운영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김제시(정성주 김제시장)는 지난 3일 '새만금 신항 개항 대비 김제시 항만 운영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제시의회,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6년 새만금 신항 2선석 개항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신항만 운영 전략과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 해상에 조성중인 새만금 신항만은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5만톤급 6선석, 2040년까지 3선석을 추가해 총 9개 선석이 조성 계획이며, 오는 2026년 2선석이 선도 개항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새만금 신항만을 비롯한 12개 신항만의 중장기 개발방향 설정과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용역과 '신규항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각계 전문가들과 지역언론에서는 2026년 2선석 개항 시기에 맞춰 안정적인 항만운용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사업들과 준비전략들을 발굴해 새롭게 변화되는 정부계획에 반영시켜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가관리구역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지만 항만 이용 물동량 증대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 등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추세에서 향후 본격화될 신항만 개항 준비를 위한 논의와 신항만 관련 새로운 정부계획에 보다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시는 국내 31개 무역항에 대한 사례조사와 벤치마킹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는 한편 신항만 조기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항만 운영전

략과 지자체 역할을 전문성을 갖춰 세심하게 사전 준비하고자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시는 신항만발전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해마다 주기적으로 위원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해 새만금 신항인 인근 타 항만과 차별화를 통하여 조기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신산업 발굴 등 특성화 전략을 수립, 정부의 항만정책에 건의하는 한편 신항만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미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방안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신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의 미래 신산업을 견인할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본 용역을 통해 정부의 항만기초에 맞는 전문성있는 신항만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새만금 신항이 환황해권물류중심의 중추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김제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7일 김제시청 2층 상환실에서 자원순환 시민 전문가에게 감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제시, 자원순환 시민전문가 37명 위촉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선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7일 김제시청 2층 상환실에서 자원순환 시민 전문가에게 감사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자원순환 시민전문가는 시민 주도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처음 양성된 제1기 22명과 올해 신규로 양성된 제2기 15명을 포함한 총 37명이다.

위촉기간은 7월부터 오는 2025년 5월 6일까지 1년으로, 자원순환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위촉된 제2기생들은 4주간 올바른 분리배출, 재활용의 이해 등 자원순환 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향후 1기생과 함께 직접 마을회관, 경로당을 방문해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자원순환 시민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원순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가-도시근로자 연계로 '농촌 일손 해결'

완주군 로컬잡센터

완주군이 로컬잡센터를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시근로자 인력을 연계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완주군은 2024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전북 농식품 도농상생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수행기관과 컨소시엄을 맺고 완주군 로컬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군 로컬잡센터는 지역 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시근로자 5,000건 인력 연계 지원을 목표로 중식비,

간식비 지원 및 농가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으로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유휴인력 연계 활성화를 위해 농업이 처음인 근로자에게 완주군의 주요작물 농가체험 교육과 농기계 활용법, 안전교육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사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상관면 허브농가에서 초보 농업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농가체험교육을 진행해 참여 구직자의 높은 호응 속에 상황에

교육에서는 농기구 활용 안전교육

과 허브작물 재배법, 삼목, 수확, 손질 등 이론과 실습이 병행 실시됐다.

완주군 로컬잡센터는 향후 완주군의 다양한 농작물과 연계해 체험기회를 확대·추진하고, 참여 구직자를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매칭해 농가 인력난 해소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가일자리 연계 시에는 일용 근로계약 체결,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지원한다.

농가일자리 참여신청 및 문의는 완주군 로컬잡센터(261-1420, 262-1723~6)로 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의회의 7일 의회 의정실에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완주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개최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는 7일 의회 의정실에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서남용 의장, 이경애 부의장, 성중기·심부건·유이수·이주갑·이순덕 의원 등 의원 7명과 완주군장애인연합회 김덕연 회장, 전북지자체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 심동택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완주군 장애인 단체의 현황과 정책제안 등을 청취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애인 단체는 완주군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장애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를 건의했다.

서남용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단체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 단체의 복지증진과 권익보장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장애인 복지증진과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성산 도시재생' 지역특화 징계장터 연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역특화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성산 징계장터' 행사를 7일과 오는 12일 두 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터는 성산, 요촌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합심해 지역산품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장터로 운영되며 장터에서는 고추장, 된장 등 장류, 미숫가루, 누룽지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다문화 소상공

인이 함께하는 아시아 식료품, 민터지 의류 등이 판매될 예정이다.

7일에는 성산지구 도시재생 지역의 4개 마을 어르신들에게 케이션 달아 드리는 행사와 고고장구, 민요 등 공연도 열린다. 특히 오는 12일에는 성산공원, 향교마을 투어 및 '소망나무 포토존' 행사가 준비돼 성산공원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징계장터가 열리는 공연장은 지난해 8월 도시재생사업으로 준공된 장소로 잔디광장, 데크무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 김제전통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은 "이번 징계장터를 통하여 김제전통시장, 5일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지역 소상공인, 농업인들과 연계한 특화장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